

## 하루하루가 고통인 사람들의 기다림



김미영  
매일노동뉴스 기자

“지...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한 번도 일을 쉬 적이 없어요.”

지난해 필자가 만났던 이학문(53) 씨는 이 짧은 한 문장을 토해내는 것도 버거워했다. 그는 ‘기자’인 필자를 만나자마자 “일을 하고 싶다”고 간절히 말했다. 하지만 그의 몸은 일하기 쉽지 않아 보였다. 이학문 씨는 뇌가 쪼그라드는 다계통 위축증을 앓고 있다.

이학문 씨는 1997년 방역회사에 취직해 이후 18년간 한 번도 일을 쉬 적이 없었다. 그는 온몸에 소독약을 뒤집어쓰며 해충약을 뿌렸고, 바퀴벌레가 가득한 정화조와 물탱크에 살충제를 살포하면서 손으로 닦아내기도 했다. 공장 창고와 박물관 지하 수장고에서는 창문과 출입문을 밀폐하고 연막소독을 했다. 약을 많이 친 날은 하늘이 노랗고 머리가 핑 돌았다.

이학문 씨가 일한 곳은 노동자 수가 10명이 채 되지 않는 ‘용역’업체였다. 이학문 씨는 소독과 방역업무를 하면서 사용한 약품의 이름은 하나도 알지 못했다. 일하면서 보호구를 받은 적이 없다. 고작 면마스크나 면장갑 정도만 착용했다.

### 산재 신청한 지 1년, 그러나 지금까지

이학문 씨가 일을 그만둔 것은 2016년 중심을 잃고 쓰러지는 날이 늘면서다. 술 취한 사람처럼 말이 어눌해지고 멍한 느낌이 드는 자신을 자책했다. 병원에 가야 자신의 뇌가 쪼그라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일하다 넘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때는 일을 빨리 서두르다 그런 줄 알았다. 이 씨는 노무법인 사람과산재의 도움으로 2022년 3월 근로복지공단 서초지사에 산재 신청을 했다. 이 씨의 뇌는 그 이후로도 시시각각 기능을 잃어

가고 있다. 다음 달이면 산재 신청한 지 1년이 되지만 공단은 답이 없다. 이 씨뿐만 아니다. 포스코에서 일하다 폐암·백혈병에 걸린 노동자 3명은 산재 신청을 한 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지금도 끝없는 기다림 속에 있다. 특히 포항제철소에서 40여 년간 석회석·철광석·석탄 등 원료공급 작업을 하다가 폐암에 걸린 노동자는 거동조차 어려울 정도로 병이 악화했다.

## 너무나 더디고 지난한 희망 고문

참다못한 노동자들은 지난 2월 10일 울산 중구 근로복지공단 본사를 찾아갔다.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와 포스코지회는 “안전보건공단은 역학조사 진행 경과를 공개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은 안전보건공단의 결과를 이유로 직업성암 산재노동자의 산업재해 판정을 미루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제는 치료조차 불가능한 몸이 된 이들에게 1년 4개월은 너무 길다. 노동자들은 가족에게 자신의 치료비와 간병비 부담을 주는 것이 괴로워 삶의 끈을 놓아버릴 생각이 든다고 토로했다. 그들에게 업무상 질병 승인은 유일한 희망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해야 할 공단이 너무 오래 사건을 잡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공단은 요양급여 신청을 받으면 7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해서 알려 줘야 한다.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법정 처리기한은 20일이다. 하지만 2021년 8월 기준 산재 신청부터 판정까지 걸리는 평균 업무처리 소요 기간은 직업성암은 306일, 뇌심혈관계질환은 123일, 근골격계질환은 118일, 정신 질환은 209일에 이른다.

## 진짜 삶을 이어갈 희망을 건네야 할 때

공단에 사건을 접수하기 전까지를 합치면 판정까지의 시간은 더 길다. 업무와 재해 간 인과관계 입증책임이 노동자에게 있어 스스로 관련 자료를 모아야 한다. 사업장이 사라진 경우도 있고 사용자가 협조를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 아픈 당사자로서 극도로 고통스러운 시간일 수밖에 없다. 물론 공단도 그저 시간만 보내고 있는 것은 아니다. 지난해 5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2곳 더 추가했다(이런 결과가 나오기까지 민주노총과 금속노조가 2021년 5월부터 71일간 고용노동부 앞에서 ‘산재처리 지연 근본 대책수립·추정의 원칙 법제화·산재보험 제도개혁 촉구’ 농성을 벌였다). 하지만 여전히 1년 넘게 고통 속에서 시간을 보내는 노동자가 너무 많다. 지금 이 시간에도 ‘사투’를 벌이고 있는 재해 노동자에게 진짜 삶을 이어갈 수 있는 희망을 건네야 할 때다. 🍷